

【연구논문】

포카혼타스 이야기들을 통해서 본 인종과 젠더

최재인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강사)

들어가는 말

포카혼타스는 1596년 무렵에 북미 버지니아 지역에 살던 원주민¹⁾ 포와탄 부족장²⁾의 딸로 태어나, 1617년 영국에서 사망했다. 21년의 짧은 생이지만, 원주민과 유럽인, 두 세계가 만나던 경계에 서서 두 세계를 넘나들며 특별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이름은 지난 400년 동안 미국의 역사와 신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의 하나로 회자되어 왔다.

이 글은 포카혼타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여기서 ‘이야기’는 역사 연구서와 대중적인 역사 소설, 영화 등을 모두 포괄한다.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은 거의 인류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준다. 역경을 극복해 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독자에게 대리만족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도 한다. 인기 있는 이야기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소망과 두려움, 그리고 그 사회의 규범과 정체성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이야기들은

-
- 1) 이 논문에서 ‘원주민’은 유럽인이 가기 오래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고 있던 이들을 말한다. ‘인디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미국 일상에서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았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디언’은 인도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른 두 집단에 대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양 집단 모두에게 결례이며, 학문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2) 당시 포와탄 부족장은 여러 마을 추장들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래서 추장 대신 부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포와탄’은 이 지역 원주민의 부족 명이기도 하고, 부족장을 칭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 사회의 규범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역사에서 이야기꽃을 가장 무성하게 피운 이 중 하나가 포카혼타스이기는 하지만, 정작 그녀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당대 기록은 모두 영국인 남성이 남긴 것이다. 책으로 기록을 남긴 이는 1607년부터 1610년대 사이에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얼마간이라도 머물렀던 스미스(John Smith), 스트레이치(William Strachey), 하머(Ralph Hamor) 등이다.³⁾ 이들 책에는 기록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과 여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영국인 남성들은 젊고 아름답고 영리한 포카혼타스에 대해 호기심은 있었지만, 그녀의 생각과 감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그녀의 행동, 그녀가 놓인 상황 정도이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는지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도 지난 400년 동안 많은 학자와 작가들이 다양한 포카혼타스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 원주민 여성 포카혼타스를 다룬 이야기들에는 각 시대의 인종의식과 젠더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⁴⁾ 이 논문에서는 먼저 포카혼타스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그녀의 실제 삶은 어떠했는지를 알아본 뒤, 현대 미국 사회의 포카혼타스 이야기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3) 존 스미스는 가장 많이 4권의 책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1986년에 바부르(Philip Barbour)가 편집한 전집을 참조하였다. Captain John Smith, *The Complete Works of Captain John Smith (1580-1613)*, 3 vols. ed. Philip L. Barbour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스트레이치(William Strachey)의 책은 1610-12년 사이에 기록되었지만, 1849년에 가서야 처음 책으로 발행되었다. William Strachey, *The Historie of Travaile into Virginia Britania*, ed. R. H. Major (London: Hakluyt Society, 1849); Ralph Hamor, *A True Discourse of the Present Estate of Virginia: London 1615* (London: 1615; reprint, Richmond: Virginia State Library, 1957).

4) 이 논문은 주로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을 포카혼타스 당대의 문헌들과 비교하여 다룬다. 본문에 소개된 19세기, 20세기 초 이야기들은 주로 다른 연구서들에서 인용했다. 또한 인용한 포카혼타스 당대 기록 중 많은 경우가 다른 여러 연구서에서 소개된 것과 중복되기도 한다. 이는 포카혼타스에 대한 사료가 얼마 안 되는 조건에서 불가피했다.

1. 포카혼타스의 스미스 구출 이야기

포카혼타스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는 영국인 탐험가 스미스가 포와탄 부족에게 포로로 잡혀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 부족장의 딸인 포카혼타스가 온 몸을 던져 스미스를 감싸고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하여 그의 목숨을 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스미스가 1624년에 펴낸 책에서 한 이야기이다. 스미스는 이 이야기를 당시 영국 왕비 앤에게 1616년에 보낸 편지에서 이미 했다고 쓰고 있다.⁵⁾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스미스가 포로생활을 한 것은 1607년에 12월에서 1608년 1월 2일까지이다. 포카혼타스가 그를 구출 사건이 실제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일 것이다. 스미스는 1608년과 1612년에도 버지니아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 발표한 바가 있지만, 그 때는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스미스는 포카혼타스를 비롯하여 버지니아에서 살았던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내놓은 책에서 비로소 이 사건을 소개한 것이다. 관계자들이 모두 사망하고 난 뒤에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심지어 역사학자 르메이(LeMay)는 『포카혼타스가 존 스미스 선장을 구출했는가?』(1992)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⁶⁾

이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 이야기가 허구일 가능성이 처음 문헌으로 제기된 것은 1866년이다. 당대부터 두 세기가 넘는 동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⁷⁾ 또한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5) Smith, *Complete Works*, 1: pp. 53-57, 2: pp. 150-151.

6) J. A. Leo LeMay, *Did Pocahontas Save Captain John Smith*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1).

7) Robert S. Tilton, *Pocahontas: The Evolution of an American Narrative*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4); Karen Robertson, "Pocahontas at the Masque," *Signs* 21: 3 (Spring, 1996), pp. 551-583.

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라운트리(Helen C. Rountree)는 19세기 중엽에 와서야 200여 년 전의 문헌에 대해 사실성을 문제 삼았다고 해서 그 이전까지 스미스의 기록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9세기 전에는 역사와 문학 사이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⁸⁾

두 번째 입장은 스미스가 비슷한 일을 겪기는 했지만 그것은 스미스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자로 삼는 의식의 일부였는데, 그가 오해하고 과장하여 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해석은 1970년 바부르(Philip Barbour)가 내 놓았다.⁹⁾ 하지만 인류학자 라운트리는 동부 해안지역에 사는 어떤 원주민 사회에도 그런 의식이나 풍습은 없다고 주장한다.¹⁰⁾ 그러나 인류학자라고 해도 400년 전 원주민 사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바부르의 설명은 많은 역사학자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¹¹⁾ 이는 바부르의 설명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가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연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 번째 입장은 그 이야기는 스미스가 지어낸 것일 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스미스가 1608년과 1612년에 책을 낼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쓰다가 1624년에 가서야 쓴 것은 1616년 런던에 와서 유명해진 포카혼타스를 이용하여 “책을 팔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 라운트리는 스미스의 책은 부풀려진 여행기로 봐야지 역사 서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

8) Helen C.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Three Indian Lives Charged by Jamestown*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5), p. 81.

9) Philip L. Barbour, *Pocahontas and Her World* (Boston: Houghton Mifflin, 1970), pp. 24-5.

10)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p. 79-80.

11) James Horn, *A Land as God Made It: Jamestown and the Birth of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2005); Frances Mossiker, *Pocahontas: The Life and the Legend* (New York: Da Capo Press, 1996); Jean Fritz, *The Double Life of Pocahontas* (New York: C. P. Putnam's Sons, 1983); LeMay, *Did Pocahontas Save Captain John Smith*.

12) Karen Ordahl Kupperman, introduction to *Captain John Smith: A Select Edition of His Writing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p. 58.

이면, 그는 러시아와 터키에서도 그곳에 사는 신분 높은 여성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는 셈이 된다.¹³⁾

이 이야기의 사실성 여부는 결론이 나기 힘든 논쟁이다. 어느 입장이 결정적 증거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도 오랫동안 논의가 분분했던 것은 이 이야기가 남부 사회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포카혼타스의 스미스 구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남부와 북부 사회의 대립이 첨예화되던 1830년대였다. 북부는 미국사의 시작과 정통을 매사추세츠의 청교도에서 찾았다. 반면 남부는 영국인이 처음 북미에서 식민지를 세우는데 성공한 곳이 플리머스(1620년)보다 13년이나 앞선 버지니아 제임스타운(1607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카혼타스와 스미스 이야기가 남부에서 유명해졌다. 제임스타운의 역사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게 하기 위해 스미스와 포카혼타스의 극적인 이야기가 이용된 것이다.¹⁴⁾

포카혼타스 이야기들이 유명해지면서, 그녀의 이야기 중 점점 더 가려지게 된 것도 있다. 포카혼타스가 14살 무렵에 원주민 남성과 결혼했다는 기록이다. 스트레이치는 포카혼타스가 “코쿰(Kocoum)이라는 원주민과 결혼했다”고 썼다.¹⁵⁾ 이 지역 원주민 여성들은 대개 12살이 지나면 오래지 않아 결혼을 했다. 포로로 잡혔던 16세 무렵까지 포카혼타스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 원주민과의 결혼 이야기는 대중 서적은 물론이거니와 학술 연구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들다. 대중적으로는 포카혼타스가 원주민 남자와 결혼한 바 있는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역사가들은 대중이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를 굳이 들추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912년 시인 오델(Edson Kenny Odell)은 ‘포카혼타스의 로맨스(The Romance of

13) Smith, *Complete Works*, 3: pp. 41, 186-88, 200, 201;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 80에서 재인용.

14) Tilton, *Pocahontas*, pp. 5, 173; Horn, *Land As God Made It*, pp. 288-9.

15) Strachey, *Historie of Travaile*, p. 54.

Pocahontas)'라는 글에서 "일부는 포카혼타스가 존 롤프의 아내가 되기 전에 젊은 추장 코쿰과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¹⁶⁾ 포카혼타스가 이미 원주민과 결혼한 바 있다는 기록을 미국 사회는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1995년에 디즈니사에서 만든 만화 영화 『포카혼타스』에서 '코쿰'이라는 이름의 원주민 남성은 포카혼타스를 혼자서 사랑하지만 스미스에게 결국 빼앗기고 마는 역할로 등장한다. 포카혼타스가 스미스를 구출했다는 이야기는 백인 사회에서 원주민 여성이 원주민 남성보다 백인 남성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로 읽혀 왔다. 스미스 구출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포카혼타스는 백인 남성의 정복욕을 만족시키는 대상이자, 처녀지 아메리카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에서 왜 그녀는 역사적 사실인 영국인 남편 롤프의 아내이거나 아들 토마스의 어머니이기 보다는 사실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스미스를 위험에서 구출한 여성으로 등장하는 것인가. 1805년 데이비스(John Davis)가 스미스 구출 이야기를 일종의 사랑 이야기로 펴낸 것을 시작으로, 포카혼타스를 다룬 많은 작품들 속에서 그녀는 남편인 롤프와 함께 등장하기 보다는 주로 스미스의 구원자로, 스미스에게 연정을 품은 아름다운 원주민 아가씨로 등장한다.¹⁷⁾ 이에 대해 톨튼(Robert S. Tilton)은 미국 사회가 인종 간의 결혼을 법적 사회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8세기까지는 포카혼타스가 롤프와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은 이야기가 스미스 구출 사건 못지않게 자주 등장했다. 버지니아의 유력한 가문들은 혈연적으로 포카혼타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심지어 대통령을 지낸 제퍼슨(Thomas Jefferson)도 그의 딸이 포카혼타스의 후손과 결혼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퍼슨은 원주민과의 결혼을 통해 백인이 미국 땅을 평화롭게 점령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공인

16) Rebecca Blevins Faery, "Cartographies of Desire: Captivity, Race and Sex in the Shaping of an American Nation," (Univ. of Iowa, Ph. D. Diss., 1996), p. 185.

17) John Davis, *Captain Smith and Princess Pocahontas: An Indian Tale* (Philadelphia: T. C. Plowman, 1905); Tilton, *Pocahontas*, p. 3에서 재인용.

으로서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은 제퍼슨이 거의 마지막이다. 19세기 초가 되면 원주민과 그런 평화를 그리는 것은 먼 옛날 혹은 먼 훗날의 꿈일 뿐이며, 원주민을 무력으로 몰아내는 것이 현실에서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포카혼타스와 롤프의 결혼 이야기는 포카혼타스 이야기들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18세기까지는 백인 사회가 전반적으로 원주민과의 결혼에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19세기 보다는 유연하고 유동적이었다는 것이다.¹⁸⁾

틸튼은 19세기 이후 포카혼타스의 결혼 이야기가 거의 거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탁월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녀의 스미스 구출 이야기가 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스미스 구출 이야기가 인기를 누린 것은 무엇보다 백인의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심 때문이었다. 제임스타운 식민지에서 총독을 비롯한 영국 지도자들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의 하나는 영국인 주민들이 원주민 사회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원주민 사회로 가려다가 잡힌 이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¹⁹⁾ 원주민을 멀리 쫓아내서 대다수 미국인의 일상에서는 그들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된 19세기에도 원주민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프론티어가 미국인에게 계층 상승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희망의 보루이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항상 원주민과의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 조건에서 포로가 된 백인을 구해준 아름다운 원주민 여성 포카혼타스의 이야기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백인 남성으로서 자신감과 우월감도 느끼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포카혼타스 이야기는 백인이 원주민과 치르는 전쟁에서 중요한 문화적 수단이었다.

18) Tilton, *Pocahontas*, p. 11.

19) Peter Hulme, *Colonial Encounters: Europe and the Native Caribbean 1492-1797* (London: Routledge, 1992), pp. 142-3.

II. 영국인의 포로가 된 포카혼타스

포카혼타스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의 포카혼타스도 전쟁에 이용되었다. 제임스타운의 영국인들은 16세의 포카혼타스를 포로로 잡아 원주민과의 협상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원주민의 포로가 되었던 것으로 유명한 스미스의 포로 생활은 정작 한 달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카혼타스는 포로에서 풀려났다는 기록이 없다.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포로로 있던 중 영국 남자와 결혼했으니, 그때까지 만을 포로 생활로 본다고 해도 1년을 넘게 한 셈이다.

포로가 되기 전 포카혼타스는 거칠 것 없이 활달한 소녀였다. 그녀는 제임스타운에 살고 있던 영국인들 사이에서 포와탄 부족장의 딸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두 집단의 사이가 좋았던 시기에는 친구들과 제임스타운에 놀러가곤 했다. 스트레이치(William Strachey)는 다른 사람의 목격담을 빌어 항구로 놀러오곤 했던 포카혼타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예쁘고 장난꾸러기인 포와탄의 딸은 가끔 우리 항구로 놀러 왔다. 11살 혹은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소년들과 함께 장을 보러 오기도 했다. 그녀는 거의 벌거숭이로 소년들을 바퀴로 만들어 굴리고, 또 그녀도 함께 구르면서 온 항구를 쏘다녔다.²⁰⁾

스미스는 1608년 책에서 포카혼타스에 대해 “10살 정도 되는 포와탄의 딸은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재치와 소견에 있어 다른 원주민과 비교할 수 없다”고 쓰기도 했다. 포카혼타스는 부족장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을 갖고 제임스타운에 가곤 했다. 1612년 책에서 스미스는 원주민과 간단한 회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예문을 실기도 했다. “포카혼타스에게 두 바구니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20) Strachey, *Historie of Travaile*, p. 65.

그녀에게 흰 구슬을 주어 체인(chain)을 만들게 해 줄 것이다.”²¹⁾

포카혼타스의 어린 시절은 ‘포카혼타스’라는 그녀의 별명(아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스트레이치에 따르면 ‘포카혼타스’는 “작은 말쑥꾸러기(little wanton)”라는 뜻이다. 여기서 wanton은 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알기는 힘들다. 라운트리와 로버트슨(Karen Robertson)은 1600년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이 단어를 “활달한, 변덕이 심한, 버르장머리 없는, 철없는, 음란한”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체로 그녀의 아버지가 호기심 많고 활달하여 귀여운 딸에게 붙여준 별명이 아니겠냐고 추정한다.²²⁾

하지만 1613년 영국인에게 납치당한 이후부터 그녀의 삶은 급변한다. 그녀가 납치된 과정은 이렇다. 원주민과 영국인은 서로의 힘과 의도를 간파하기 위해 오랫동안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다. 두 집단은 때로는 전투를 치루기도 하고, 또 평화시기에는 물물 교환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포카혼타스가 영국인 마을 주변에 살고 있는 한 원주민 부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인 선장 아르갈(Argall)은 포카혼타스를 납치할 계획을 세운다. 아르갈은 그 원주민 부부를 매수하여 포카혼타스를 배에 오도록 유인한 뒤, 그녀를 배에 억류시킨다. 왜 자신을 가두냐고 하는 포카혼타스의 물음에 아르갈은 “포와탄이 영국인 8명을 포로로 잡아 갔고, 무기도 많이 빼앗아갔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포카혼타스는 아주 “힘들어하며, 방어적이어 졌다.”²³⁾ 스미스의 표현에 따르면, 포카혼타스는 자신이 납치된 것을 알고 “소리 지르며, 크게 울었다.”²⁴⁾

포로 생활을 하는 포카혼타스의 모습은 주로 “조용했다.” 포로 생활을

21) Smith, *Complete Works*, 1: p. 93, 2: p. 139;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p. 83-4.

22) Strachey, *Historie of Travaile*, pp. 62, 113;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p. 37-8; Robertson, “Pocahontas at the Masque,” p. 558.

23) Hamor, *True Discourse*, p. 6;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 157; Robertson, “Pocahontas at the Masque,” pp. 566-7.

24) Smith, *Complete Works*, 2: p. 244.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영국군과 함께 포와탄 부족장이 사는 마을 부근까지 가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형제들을 만났다. 형제들은 그녀의 건강을 염려했고, 그녀는 “아버지가 나보다도 낡은 칼과 도끼 따위의 쇠붙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느냐”며 포로 생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였다.²⁵⁾ 양 측의 협상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포와탄은 영국인 포로 중 죽은 이도 있고, 도망간 이도 있기 때문에 다 돌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대신 포와탄은 빼앗은 영국군의 무기를 망가뜨려 돌려보내면서 식량을 함께 보냈지만, 영국인은 만족하지 않았다. 포카혼타스의 포로 생활은 일 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²⁶⁾

그러다가 포카혼타스는 포로 생활 중 알게 된 영국인 롤프(John Rolfe, 담배 재배 개척자. 이후 대농장주가 됨)와 1614년 4월 결혼을 했다. 그리고 곧 기독교로 개종하며, 이듬해에는 아들 토마스를 출산했다. 롤프는 결혼하기 전에 “포카혼타스의 신변(safety)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포와탄 부족장을 찾아갔다.”²⁷⁾ 아마도 포와탄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인사차 갔던 것으로 보인다. 포카혼타스가 함께 갔다는 기록은 없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다. 포와탄 부족장은 오지 않았고 대신 아들 둘을 보냈다. 포카혼타스의 결혼과 개종은 당대부터 영국 사회에서 큰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버지니아 회사는 원주민 공주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널리 선전하였다. 원주민을 영국의 종교와 문화로 동화시킬 수 있음을 선전하면서 유럽 문명의 우월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북미 대륙으로의 진출이 종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인상을 주어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과 개종에 대해서는 좀 더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그녀의 결혼이 얼마나 자발적인 것인지가 애매하다. 라운트리는 포카혼타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25) Hamor, *True Discourse*, pp. 6-11.

26)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 164.

27) Hamor, *True Discourse*, p. 10.

이는 포카혼타스가 여전히 포로상태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 설명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운트리네는 이를 피납자가 납치범에게 갖게 되는 연민과 호감을 뜻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설명한다. 포카혼타스가 오랜 시간 영국인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결혼도 개종도 그녀의 마음이 동하여 하게 된 선택이었다고 주장이다.²⁸⁾ 하지만 스톡홀름 증후군에 따른 선택을 포카혼타스의 진정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휘하는 이상 심리 상태이지, 자신을 둘러싼 객관적인 정황을 제대로 보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포카혼타스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롤프가 당시 제임스타운의 총독이던 데일(Thomas Dale)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주로 롤프의 고민뿐이다. 편지에서 롤프는 포카혼타스를 우선 야만인에 이교도라고 했다. “예의범절을 배우지 못하여 미개하며, 너무 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모순된 존재이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필자 주) 때로는 두려움에 몸이 떨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여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그녀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극복한다. 포카혼타스가 “자신에게 보여준 큰 사랑을 볼 때, 배우고자 하고,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을 볼 때, 그녀의 이해력을 볼 때” 그녀를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총독에게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한다.²⁹⁾ 롤프가 포카혼타스를 야만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원주민과 싸우며 경쟁을 벌이는 조건에서 원주민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칫 영국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롤프가 자신

28)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 162.

29) John Rolfe, “Letter to Governor Thomas Dale,” in Mossiker, *Pocahontas*, pp. 344-48. 인용문은 pp. 346-7.

의 종교적 신실함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롤프가 데일 총독에게 쓴 편지에는 포카혼타스의 감정과 생각이 나타나있지 않다. 어쨌든 영국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포카혼타스를 필요로 했지만 그녀의 의견과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영국인들 사이에서 포카혼타스의 처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롤프가 편지에서 밝힌 계획대로 포카혼타스는 결혼 후 곧 개종을 한다. 그녀는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으며 레베카라는 새 이름을 받는다. 세례식에서 포카혼타스는 자신의 비밀 이름이 마토카(Matoaka)라고 밝힌다. 앞서 언급한대로 ‘포카혼타스’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별명이었으며, 원주민 사회에서 그녀의 이름은 아모누트(Amonute)였다.³⁰⁾ 마토카 혹은 아모누트가 무슨 뜻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북미의 여러 원주민 사회에서는 태어난 아기에게 아주 긴밀한 가족 사이에서만 쓰는 비밀 이름을 하나 지어준다. 이 이름은 널리 공개하는 이름이 아니다. 나쁜 사람 혹은 악령이 저주를 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³¹⁾ 그런데 포카혼타스는 마토카라고 하는 자신의 비밀 이름을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으며 공개한다. 이는 포카혼타스가 억지로 혹은 가짜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세례 의식에 진심으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라운트리가 주장한 것처럼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라운트리처럼 해석할 경우에는 포카혼타스의 개종이 크게는 오랜 생활의 포로 생활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포카혼타스는 오래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영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 사회에서 포로를 대했던 관행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태도이다. 많은 북미 원주민 사회들에서 포로의 운명은 경우에 따라 달랐다.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 많은

30) Strachey, *Historie of Travaile*, p. 62;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p. 37-8

31) Samuel Purchas, *Purchas His Pilgrimage*, 3rd ed. (London: 1617), p. 943;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 166에서 재인용.

경우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살아남은 포로들은 주로 노예로 노동력의 일부가 되며, 이후 결혼 등을 거쳐 가족을 형성하고 친족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었다. 포카혼타스는 성장 과정에서 이런 포로들의 운명을 많이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영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아마도 거의 체념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제대로 영국인이 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영국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결혼도 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한 절차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타운센드(Camilla Townsend)는 포카혼타스의 선택에 대해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타운센드는 결혼과 개종 등에 대해, 포카혼타스가 자신을 영국인 사회로 보내진 원주민의 외교사절 혹은 스파이로 설정하고 내린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설명한다. 포카혼타스는 영국인과 오래 있으면서 영국인들이 원주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영국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원주민에게 필요하고 좋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포카혼타스가 영국까지 가게 된 것도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타운센드는 포카혼타스를 영국인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이용된 희생자이기 보다는 원주민 사회를 위해 노력했던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³²⁾

하지만 타운센드의 해석은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 있다. 포카혼타스가 영국으로 가게 된 것은 그녀의 의지이기 보다는 버지니아 회사가 식민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경비를 대면서 주선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녀의 호기심과 원주민 출신으로서 잘 처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발동했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도모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

32) Camilla Townsend, *Pocahontas and the Powhatan Dilemma* (New York: Hill and Wang, 2004).

III. 영국에서의 포카혼타스

1616년 포카혼타스는 아르갈 선장이 이끄는 배를 타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원주민 10 여명과 함께 영국 여행길에 오른다. 그 중 원주민 우타마토마킨(Uttamatomakkin)은 포와탄 부족을 대표하는 외교관이자, 새로 알게 된 나라를 탐구하기 위한 시찰자의 임무를 띠고 배에 올랐다. 그는 포와탄 원주민 사회에서 사제이며 포와탄 부족장의 자문위원 중 한 명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는 공식 석상에 원주민 의상을 그대로 입고 나갔다. 우타마토마킨은 영국 국교회의 사제와도 만나 한 시간 이상 토론을 벌였고, 왕 제임스 1세를 만나서 포와탄 부족장이 보낸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임스 1세는 우타마토마킨에게 답례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타마토마킨은 자기가 영국 왕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훗날 스미스는 아직 왕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우타마토마킨에게 일전에 그가 만난 사람이 왕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우타마토마킨은 스미스가 포와탄 부족장에게 준 선물인 흰 개를 부족장은 손수 기르며 아끼고 있는데, 영국 왕은 무례하게 답례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며 몹시 침통해하기도 했다.³³⁾

포카혼타스도 사제를 만나고 왕을 만나지만 그녀의 처지는 우타마토마킨과는 달랐다. 사제와의 만남은 북미 원주민 사이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포카혼타스를 사제가 맞이하는 자리였다. 왕이나 왕비를 만나 따로 면담을 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다만 1617년 1월에 있었던 가면극을 함께 보았다고 한다. 이 극장에서 포카혼타스는 잘 보이는(그녀가 연극을 보기 좋은 자리일 뿐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다른 관객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 공연장에서는 공연만이 아니라, 그녀 자체도 큰 구경거리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영국에서 그녀는 원주민의 공주로 소개되면서 유럽 귀족 여성이 입는 고급 드레스를 입고 상류층 인사들을 만나고

33)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 179.

다녔다. 다른 지역에서 온 원주민 여성이 유럽 사회에서 공주 대접을 받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아직까지 원주민과 유색인종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유동적인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카혼타스를 실제로 존중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인들은 그녀에게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추려내어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녀는 어디가나 항상 주목 받는 조건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그녀 모습을 “과묵하며”, “아주 깎듯하고 예의가 바르게 행동하여 마치 영국에서 잘 교육받고 자란 숙녀와 같았다”고 한다.³⁴⁾

영국에 살았던 포카혼타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는 그녀의 초상화이다(<그림>참조). 이 초상화 역시 버지니아 회사가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포카혼타스 그림들 중 그녀가 살아 있을 때 나온 유일한 그림이다. 그림 속의 포카혼타스 모습은 전형적인 아메리카 원주민이기 보다는 유럽인의 얼굴을 많이 닮아 있다. 화가가 아직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유럽 여성의 모습도 아니다. 로버트슨은 당시 유럽 귀족 여성의 초상화 중 그녀처럼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은 사냥 복장을 한 여왕의 야외 초상화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하면서, 특이한 복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포카혼타스는 모자를 쓰고 있고, 긴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얼핏 보면 남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들고 있는 부채나 레이스 장식 등으로 미루어 보면 딱히 남자의 모습도 아니다. 로버트슨은 숨쉴 수 없는 화가가 그려 손가락도 이상하게 틀어져 있고, 그림이 전체적으로 불균형하다고 지적한다.³⁵⁾ 어딘지 안 맞는 옷,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것은 화가의 능숙하지 못한 솜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영국 사회에서 포카혼타스가 놓인 애매한 처지를 보여

34) Kathleen M. Brown, *Good Wives Nasty Wenches and Anxious Patriarchs*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pp. 42-43; Barbour, *Pocahontas and Her World*, pp. 175-6, 179; Robertson, “Pocahontas at the Masque,” pp. 573-7.

35) Robertson, “Pocahontas at the Masque,” 572-3

주는 것 같다. 얼굴을 살펴보면, 볼도 쪽 들어가 있고 눈도 쾅하여 많이 수척해 보인다. 눈빛은 강하지만 어딘지 불안하다. 크게 뜬 눈이 왼쪽 어느 먼 구석을 쏘아보고 있어 그림 전체에 어색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꼭 다문 입은 웬만해서는 열릴 것 같지 않다. 멀리 낯선 곳에 와서 이방인으로 지내며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던 포카혼타스의 모습이 얼굴 표정을 통해 조금은 나타나 있다.



<그림> 포카혼타스 초상화. 반 데 파세(Simon van de Passe), 1616년 작. 판화. (2007.12.10: <http://www.vahistorical.org/sva2003/pocahontas.htm>).

이 초상화를 놓고 버지니아 회사의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귀족 챔벌레인(John Chamberlain)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화려한 의상을 한 포카혼타스의 모습을 비웃는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녀와 그녀 남편이 대단히 지체 높은 사람들인 줄 알게 그려 놓았다.” 그는 포카혼타스를 “얼굴색이 희지 않은 숙녀(no faire lady)”라고 하면서 그녀가 숙녀 대접을 받고 다니는 것에 대해 은근히 못마땅한 마음을 표현한다.³⁶⁾ 18세기 이후 미국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강화되면서 숙녀는 백인 여성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가 되지만, 이 시기 만해도 피부색과 사회적 지위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렇게까지 분명하던 시기는 아니었다.³⁷⁾ 챔벌레인의 이런 표현은 인종주의가 시작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스미스가 1624년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포카혼타스는 1617년 그녀의 숙소로 찾아온 스미스를 만난다. 영국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다. 스미스를 만난 포카혼타스는 간단한 인사 뒤에 외면하고 돌아 앉아 오래 동안 침묵했다. 한참 뒤 그녀는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스미스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스미스가 포와탄 부족장에게 했던 약속을 환기시켰다. “당신은 포와탄에게 당신이 포와탄의 일부라고 서약했다. 당신은 포와탄의 땅에서 이방인이었지만, 포와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네 땅에서 이방인이니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이 말을 들은 스미스는 약간의 냉소를 섞어 당신은 왕의 딸이니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포카혼타스는 “만약 당신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에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겁내지 마라.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당신은 나를 아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렇게 나는 영원히 당신네 나라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이 죽었다고 말했다. (영국: 펄자 주) 플리머스에 오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포와

36) John Chamberlain, *The Letters of John Chamberlain*, ed. Norman Egbert McClure, 2 vols.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39), 2: p. 50; Brown, *Good Wives*, p. 43에서 재인용.

37) Brown, *Good Wives Nasty Wenches and Anxious Patriarchs*, 6.

탄은 우타마토마킨에게 영국에 가거든 당신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포와탄은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네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³⁸⁾ 포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 과묵했던 포카혼타스가 분노를 표현하며 길게 말을 한 것은 기록상으로는 버지니아에서 영국군과 함께 포와탄 마을로 가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후 처음이다. 포카혼타스의 말에서 우리는 스미스가 포와탄 사회에서 그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포와탄 사람들은 스미스를 일반 영국인과 다르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카혼타스가 영국인 사이에서 살게 되면서 스미스가 포와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을 여러 번 되짚어 생각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카혼타스가 영국인에 대해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말은 원주민을 대했던 영국인의 태도와 영국인들 사이에서 포카혼타스의 삶이 어떠했을 지를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포카혼타스는 버지니아로 돌아가던 길에 병이 악화되어, 영국 그레이브센드(Gravesend)에서 임시로 머물며 요양하던 중 1617년 3월 21일 사망했다. 그녀의 시신은 그곳 교회에 안장되었다. 하지만 1727년 교회에서 화재가 나면서 묘지도 영망이 되었다. 이후 재건축을 하면서 묘지의 시신들을 관례에 따라 한 곳에 모아 합장했다. 1923년 케이스(Sir Arthur Keith)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파헤쳐 원주민 여성의 해골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녀의 유골이 분실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³⁹⁾

38) Smith, *Complete Works*, 2: p. 182.

39) Mossiker, *Pocahontas*, pp. 283-6; Rountree, *Pocahontas, Powhatan, Opechancanough*, pp. 183-5.

IV. 포카혼타스 신화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의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세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⁴⁰⁾ 포카혼타스의 이야기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변화해 왔다.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중요한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으면서 포카혼타스 이야기에도 이런 추세가 반영되었다. 최근 많이 읽히는 어린이 책을 살펴보면, 포카혼타스는 대립하는 두 세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물로 나온다. 스미스의 기록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포카혼타스는 보통의 원주민과는 다른 예외적인 원주민 여성으로 그려져 왔다. 그래서 포카혼타스에 대한 좋은 인상이 현실의 원주민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오히려 포카혼타스가 이상적인 원주민 여성으로 상징화되면서 보통의 원주민들은 더욱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사람들로 여겨졌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로 포카혼타스 모습은 다른 문화에 대해 호기심이 있지만 원주민 문화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는 원주민 소녀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다.⁴¹⁾

20세기 후반 미국 사회에서 포카혼타스가 어떻게 이야기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디즈니사에서 1995년에 제작한 만화영화 『포카혼타스(Pocahontas)』이다. 사실 이 영화가 나오면서 영화에서 표현된 그녀의 모습이 미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 뇌리에 포카혼타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인상으로 남게 되었다. 이 글에서 영화 『포카혼타스』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영화가 여러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현대 미국 사회의 인종과 젠더, 그리고 환경 문제를 둘러싼

40) 성백용, 「유킨이의 말」, 크리스티앙 아말비,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프랑스 역사에 나타난 영웅의 탄생과 몰락』(서울: 아카넷, 2004), pp. 289-90.

41) Clyde Robert Bulla, *Pocahontas and the Strangers, Scholastic Biography* (New York: Scholastic, 1971); Carol Greene, *Pocahontas: Daughter of a Chief, Rookie Biography* (Chicago: Children's Press, 1988); Kate Jassem, *Pocahontas: Girl of Jamestown* (Mahwah: Troll, 1979); Jean Fritz, *The Double Life of Pocahontas* (New York: Puffin, 1987).

담론을 반영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1995년 이 영화의 출시를 앞두고 디즈니사 간부들은 이 영화가 20세기 후반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진지한 영화임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주장했다.

첫째로 이 영화는 백인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다. 제작자는 이 영화가 “인종주의와 편협함을 극복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넓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며,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존중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⁴²⁾ 이 영화에서 원주민은 자연과 친밀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합리적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영국인 개척자 일부는 금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모습이다. 백인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디즈니사의 ‘다문화주의’는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⁴³⁾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지만 역사학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 영화의 제목이 ‘포카혼타스’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중심이 원주민에게 포로로 잡힌 스미스에게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그녀의 인생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더 중요했던 포카혼타스의 포로 생활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백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주민의 모습이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이렇게 스미스의 포로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로는 백인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백인 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원주민이 스미스와 백인에게 저질렀던 폭력과 야만 만이 아니라 백인이 포카혼타스에게, 그리고 원주민에게 자행한 폭력과 야만의 역사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 영화는 포카혼타스를 스미스와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거는 수동

42) Gary Edgerton & Kathy Merlock Jackson, “Redesigning Pocahontas: Disney, the “White Man’s Indian,” and the Marketing of *Dreams*,”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 24: 2 (1996), pp. 90-98.

43) Kutsuzawa Kiyomi, “Disney’s *Pocahontas*: Reproduction of Gender, Orientalism, and the Strategic Construction of Racial Harmony in the Disney Empire,”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6: 4 (Dec. 2002). 이 논문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서구 남성 중심적 관점을 지적한다.

적인 여성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을 추구하는 주체적이고 사려 깊은 여성으로 그리려고 시도한다. 페미니즘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영화에서 포카혼타스는 영국으로 귀환하는 스미스를 따라가지 않는다. 버지니아에 남아서 평화를 지키면서, 두 문화의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에서이다.

포카혼타스를 비롯해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던 원주민 여성을 역사의 피해자이기 보다 두 문화의 중개자로 보려고 하는 노력은 최근 학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앞서 소개했던 타운센드처럼 포카혼타스를 일종의 평화 사절로, 외교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키드웰(Clara Sue Kidwell)과 스컬리(Pamela Scully)는 17-19세기 사이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원주민 여성들이 중개자 역할을 했으며, 포카혼타스는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한다.⁴⁴⁾ 원주민 여성은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기록으로 남겨온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 연구에서 주체이기 보다는 희생자나 보조적 역할로만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혹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주체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원주민 여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들이 말할 수 없었던 조건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주목해야 한다.

문화적 중개자라고 하면 원주민의 문화를 영국인 혹은 유럽인에게 잘 보여주고 이해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인 혹은 유럽인의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권위와 힘을 가져야 한다. 당시 영국인들은 포카혼타스에게 호기심은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문화와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영국인이거나 원주민에게 중요한 문제는 누가 우월한 세력인가 하는 점이었다. 포카혼타스는 영국인들이 포와탄 부족장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

44) Clara Sue Kidwell, "Indian Women as Cultural Mediators," *Ethnohistory* 39: 2 (Spring 1992) pp. 97-107; Pamela Scully, "Malintzin, Pocahontas, and Krottoa: Indigenous women and Myth Models of the Atlantic world," *Journal of Colonialism and Colonial History* 6: 3 (2005).

기 위해 포로로 삼았고, 후에는 영국으로 데려가 영국 종교와 문화의 우월함을 선전하는데 이용했던 여성이었다. 두 세계 모두에 가족을 두었고, 두 세계 모두를 궁정에서 거리까지 밟아본 그녀가 문화적 중개자, 나아가 평화의 사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참으로 이상적이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녀가 포로로 잡히고 난 이후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버지니아에서 두 집단 사이에 무력 충돌은 거의 없었다. 역사가들은 이를 ‘포카혼타스의 평화’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두 집단의 대화와 상호 인정을 통한 것이기 보다는 그녀의 몸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⁴⁵⁾

포카혼타스는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과묵하고 조용한” 여성이 되었다. 이를 로버트슨은 침묵을 통해 말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포카혼타스는 “침묵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말하지 않음으로서 “그녀가 속했던 부족의 비밀과 우아함”을 지켰다는 것이다.⁴⁶⁾ 자기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여성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여 어떻게든 그 여성의 생각과 의도를 읽어내려는 로버트슨의 분석은 탁월하다. 하지만 포카혼타스가 놓인 상황이 침묵을 전략으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녀가 입을 다문 것은 그녀의 말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카혼타스 이야기들은 인종과 젠더에 대한 담론과 현실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디즈니사 만화영화 『포카혼타스』에서 포카혼타스 목소리를 연기한 원주민 여성 베다드(Irene Bedard)는 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역사는 항상 재해석된다. 나는 이 영화가 정확한 역사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작은 될 수 있다. 나는 어려서 부정적인 의미로 포카혼타스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아이들이 나를 포카혼타스라고 놀렸을 때, 그것

45) 그녀의 사망 이후 두 집단 사이의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마침내 두 집단 모두 대량 학살을 면하지 못한 전쟁들이 잇달았다. 1622년 포와탄 원주민의 공격으로 제임스타운의 영국인 300명 정도가 사망했으며, 1623년에는 영국인의 공격으로 원주민 다수가 사망했다. 이 전쟁은 1646년 포와탄 원주민이 참패하고 서부로 물러나면서 마무리된다.

46) Robertson, “Pocahontas at the Masque,” pp. 578-80.

은 ‘더러운 아이’라는 의미였다. 이제 이 영화로 포카혼타스는 좀 더 광범한 문화권에서 영웅적인 여성으로 유명해졌다. 이것이 지난 500년간의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학살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한다.⁴⁷⁾

실제로 이 영화는 유색인종이나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영화 『포카혼타스』는 여전히 백인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화에서 결국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주민이고, 폭력이 아니라 타고난 성적 매력과 문화의 힘으로 아름다운 원주민 공주의 마음을 얻는 것은 백인 남성이다. 하지만 17세기의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폭력을 휘두른 것은 양쪽 모두였다. 야만성을 폭력성과 다른 문화에 대한 무시와 무지라고 이해한다면, 야만성에 있어 백인 역시 원주민 못지 않았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포카혼타스이다. 베다드가 말한 대로 이 영화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화가 흥행하면서 포카혼타스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사회, 미국의 대중문화가 백인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었던 과거사를 대면할 용기가 필요하다. 흥행한 영화는 속편이 나오곤 한다. 포카혼타스가 백인의 포로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다룬 『포카혼타스-속편』이 나올 수 있을까?

47) Edgerton & Jackson, “Redesigning Pocahontas,” 95.

【Abstract】

Gender and Race in the Pocahontas Narratives

Jaein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study of Pocahontas narratives which include the historical analyses, popular novels and film. English writers have given several different accounts of the same native American, Pocahontas for 400 years. The various stories of Pocahontas have reflected the Americans' perception of race and gender.

Pocahontas did not leave the record. It was the Englishmen who wrote about the Pocahontas when she was alive. From the beginning, the documents about Pocahontas exhibit the White men's perspectives rather than her thoughts and intentions. Being taken prisoner by Englishmen, Pocahontas herself was used to the advantage of Englishmen. After her death, she became famous for her rescue of Captain John Smith, the reality of which has been in doubt among the scholars. In the West frontier, Pocahontas narratives gave the courage and confidence to the people who were in fear of the natives.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e South used the Pocahontas narrative and Jamestown history to claim the origin and legitimacy of American history against the Massachusetts Pilgrims.

From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influence the narratives. Disney's animation film *Pocahontas* reflects more or less the public discourses on race, gender and environment. But the film neglects the historical fact that Pocahontas was captured by Englishmen to be a prisoner for a long time. To overcome the White men's ethnocentrism, it is necessary for American society to acknowledge the European Americans' violent and barbarous history. Not a myth but the history of Pocahontas could be the way to face it.

주제어 (Key Words)

포카혼타스(Pocahontas), 제임스타운(Jamestown), 원주민(native Americans), 인종(race), 젠더(gender)